



살롬장애인선교회, 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 살롬장애인선교회가 제18회 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를 10일 위티어 내로우 공원에서 개최했다. 이 야유회에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예배 후 LA연합감리교회의 후원으로 즐거운 식사 시간이 이어졌으며 레크리에이션도 했다.

성경적 의미의 종말, 창조의 목적 회복

LA동부교협 주최, 성경적 종말론 학교 열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값주고 사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의 세계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LA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김신일 목사) 주최, ECO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 주관으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필찬 교수와 함께 하는 성경적 종말론 학교>가 열렸다.

주최측은 “성경은 일관되게 시작과 끝을 기록한 종말론적인 가르침이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거짓된 종말론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면서 “성경적으로 건강한 종말론을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

첫째 날 강의에서 이필찬 교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

에서 벗어난 에덴을 반드시 회복하신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종말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재림부터 생각하지만, 초림으로 이뤄진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한 구원의 사건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맥락에서 구약에서부터 준비되고 예비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한 성취와 회복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므로



이필찬 교수 본지 자료사진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의 신앙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뤄진 회복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고 창조의 목적을 삶 속에서 구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본 세미나의 목적인 에덴의 풍성한 삶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종말적인 삶을 살자”고 권면했다.

한편, 이필찬 교수의 성경적 종말론 세미나는 캐나다와 샌프란시스코, LA를 거쳐 덴버에서도 이어진다.

이인규 기자

초교과 청소년 연합수련회 올해도 열린다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 부원장 이태준 목사)이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를 섬기고자, 자체적으로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한다.

올해 주제는 “Discover in Christ”이며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및 엘림수양관에서 7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열린다. 강사는 데이빗 김 목사(버지니아 주 소재 호프웰순복음교회 담임)이며 말씀 집회와 찬양,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야외활동 등이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한인 중고등부 학생(6-12학년, 2017년 9월 기준) 선착순 120명이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행사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며 중등부와 고등부에 맞춤형 세미나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참가를 원하면 나성순복음교회 웹사이트(www.lafgc.com)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은 지

난해 처음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초교과적으로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남가주의 많은 한인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 학생 부족, 교사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교회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열지 못하고 있기에 기도원이 발벗고 나선 것이다.

당시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9개 교단, 21개 교회에서 85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며 교사 및 TA 30명, 자원봉사자 25명이 청소년들을 섬겼다. 당시 강사는 김준근 장로(JAMA 설립자)와 새라 김 사모(TVNEXT 대표)였다.

지난해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다른 교회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다”, “뜨거운 찬양 시간과 마지막 날 봉사자들이 참가자들을 안아주며 기도했을 때 너무 좋았다”는 등의 간증을 남겼다. 기도원 주소)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수련회 문의) 951-928-4415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웍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가 없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가주 지역교회를 섬기는

제2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참가신청 QR CODE)

기간	2017년 7월 24일(월) - 26일(수)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대상	한인 중, 고등부 학생(6~12학년)
모집기간	1차 - 6월 18일(주일)까지 / 2차 - 7월 9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등록비	무료
신청방법	www.lafgc.com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출석교회의 담당 교역자나 담임목사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관및문의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Tel. 951-928-4415)

DISCOVER IN CHRIST



미션크리스천대학교 및 대학원이 2017년 졸업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미션크리스천대 졸업 및 학위수여식

미션크리스천대학교 및 대학원 (총장 윤요한 박사)이 지난 6월 12일 오후 6시 30분 대학교 강당에서 2017학년도 졸업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학장 정 윤 박사의 사회로 거행된 졸업식은 MCU남성찬양단의 특별찬양으로 더욱 빛났다.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은퇴 목사, KPCA 증경총회장)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조영제 목사, 최성칠 목사, 류장식 목사, 윤세창 목사, 이천선 목사 등 교수진이 나서서 권면,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를 담당했다.

한편, 이번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면서 총장 윤요한 박사는 훈시를 통해 "우리 학교는 먼저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선지학교"라고 전제한 후, "졸업생들의 기다림 속에는 목적이 있었고, 오늘날 비로소 그 기

다림의 결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축하했다. 또 "우리는 올바른 때, 곧 하나님의 때,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때까지 기다림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졸업생 손형주(신학사), 김현주(기독교상담학사), 김수지(기독교상담학사) 씨 등에게 학위와 상패가 수여됐으며 축하객들은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며 축하했다.

문의) 562-869-7497
mdu9191@gmail.com
웹사이트) www.mcuniversity.org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가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미주크리스천신학대 졸업예배 드려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가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대학 채플실에서 거행된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에서 총 4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1부 예배는 송인 교수(신학대학장)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김영구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가 기도하고 샘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가 이사회 41:10을 봉독했다. 설교는 강신권 박사(코렌신학대학교 설립총장)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어 장혜숙 목사(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 회계)가 헌금기도하고 김소연 목사의 울동팀이 봉헌 시간

동안 찬양 울동을 선보였다.

학위수여식은 민준기 박사(신학대학원장)의 사회로 시작돼 홍성관 박사(아메리카센츄럴대학교 총장)가 기도하고 엘리야 김 박사(미주크리스천신학대 총장)가 학사보고를 했다. 축사와 권면은 김재율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이호우 목사(OC교협 회장), 김인철 박사(예장 한미개혁 총회장), 권다니엘 박사(UBU총장) 등이 전했다. 축가는 전재학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 원로)가 불렀고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행사가 끝났다. 만찬 기도는 심진구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했다.



6월 9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장혁재 홍보대사와 김경호 홍보위원

찬양으로 사랑 나눠요

굿네이버스 사랑 나눔 찬양 콘서트

국제구호개발기구 굿네이버스가 찬양을 나누며 전 세계 빈곤국가를 위한 사랑도 함께 나누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됐으며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 활발한 구호활동을 펼치며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2007년에는 UN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관련한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다. 2011년 한국 NGO 최초로 유엔식량계획(WFP)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다.

굿네이버스는 단순한 구호 외에도 식수 개발, 아동 권리옹호 및 교육, 장기적 지역 개발, 보건의료 등을 통해 한 국가, 한 지역을 섬기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 세계 3개 권역 본부, 35개 사업국가, 212개 지역에서 구호 사업을 하고 있다. 약 187만 명이 굿네이버스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굿네이버스의 사역에 공감하는 인기 연예인 최수종, 변정수, 고아라, 고수, 진세연, 김병만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또 기독교 음악인 장혁재(소리엔), 조수아 씨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주지부는 2007년 설립돼 굿네이버스 후원 사역을 진행할 뿐 아니라 아프리카 빈곤국 우물 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이은수 목사와 함께 '찾아가는 사랑 나눔 찬양 예배'라는 프로젝트로 여러 한인교회들을 방문한 바 있다.

굿네이버스 미주지부는 사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장혁재 홍보대사를 초청해 샌디에고의 새소망교회와 한빛교회, LA의 중현신교회 등에서 사랑 나눔 찬양 콘서트를 했으며 캐나다와 시카고에서도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홍보위원 김경호 목사는 "더욱 많은 이들이 굿네이버스 사역을 알고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사랑 나눔 찬양 콘서트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미주와 한국의 여러 홍보대사들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장혁재 홍보대사는 "굿네이버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역사회에 스며들고 있다"고 간증했다. 장 홍보대사는 직접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굿네이버스가 사역하는 빈곤국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교제하면서 현장을 누비고 있다.

김준형 기자



미주한인재단이 미주한인정신사관학교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리 민족 얼 전수할 정신사관학교 설립

미주한인재단(전국총회장 김성웅)이 한인 청소년들에게 송고한 우리 민족의 얼을 전수하고 뿌리 교육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미주한인정신사관학교(Korean American Spirit Academy)를 설립한다. 6월 7일 기자회견에서 사회는 이태형 미주한인재단 사무총장이 맡았고 사관학교 세부사항 설명은 김동조 미주정신사관학교 사무국장이 담당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웅 총회장은 "한인 이민 역사가 114년이 되었고 이민 4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 언론,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훌륭한 한인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한국의 역사 교육과 뿌리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한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8월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정기 교육은 9월부터 월 2회,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연회비는 100달러다.

이들은 15일(목) 오전 11시에 캘리포니아 카운티 클럽에서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연다.

문의) 213-272-0561

권 쉐비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Anniversary

나성제일교회(1967~2017)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

인사의 말씀
 창립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기념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삶에 지친 분들과 마음의 쉼과 안식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오셔서 찬양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문수 목사 (나성제일교회)

일시 : 2017년 6월 18일(주) 오후 7:30
장소 : 나성제일교회 본당

주최 : 나성제일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주관 :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후원 : 각 기관 및 목장
 주소 :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el: (213)388-7101



뮤리에타한인장로교회가 창립 23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창립 23주년 맞이해 선교적 교회로”

뮤리에타한인장로교회 창립 기념감사예배 드려

창립 23주년을 맞아 뮤리에타한인장로교회(담임 김성수 목사)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김성수牧사는 “23년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우신 뮤리에타한인장로교회가 신실하게 성장함에 감사드립니다”면서 “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적 비전을 감당하는 귀한 시작을 열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설교를 전한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은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4-60명의 가정교회다. 에베소, 골로새 교회는 그 시작이 가정이지만 그 도시 전체를 복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목회자 중심의 계급적 관료화가 되서는 안 된다”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모두가 만인제사장이요 성직자라는 인식, 목사는 기능적으로 목사, 장로는 교회의 행정을 담당, 집사는 봉사를 담당하는 것이다. 결론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내가 교회를 간다는 의미에서 내가 교회라는 인식전환이 급선무다. 기존의 제도적 교회는 교회와 일터를 어느새부터인가 구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선교사를 보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로컬교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더 이상 이민자가 오지 않는 이민교회가 존속할 길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길이다. 건물에 투자하다 그 건물을 유지할 사람이 없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교회 본질을 놓고 같이 씨름하자”고 말했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는 이상명 총장을 주강사로 창립 기념예배와 오후 세미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예배는 김성수 목사의 인도로 1세와 2세 연합으로 드러졌다. 뮤리에타장로교회를 처음으로 설립한 최귀원 공로장로의 축사와 강장에 권사의 축사, 교회 고등학교 졸업생 축하 장학금 전달 순서도 있었다.

이인규 기자



전용대 목사가 남가주벨엘교회에서 간증하고 있다.

남가주벨엘교회 전용대 목사 간증집회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 간증집회가 지난 10일 토요일 새벽 남가주벨엘교회에서 열렸다. 전 목사는 ‘날 사랑하심’, ‘내 주의 보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등의 곡으로 집회를 시작했다.

전 목사는 20대 때 장래가 촉망되는 트로트 가수였지만 목발을 짚게 되면서 4차레나 자살을 시도한 적

이 있다. 그는 “그런 절망에서 일어서고 지금까지 행복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간증했다. 그는 한국 1세대 복음사가 사역자로 ‘낮엔 해처럼’, ‘주를 처음 만난 날’, ‘주여 이 죄인이’ 등 28개 앨범을 발표하고 1만 번 집회를 인도했다. 집회 문의는 기독일보(213-739-0403)로 하면 된다.

한인가정상담소 자녀교육 세미나 열려

한인가정상담소가 6월 9일과 11일 동양선교교회와 함께 자녀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9일에는 ‘부모의 분노조절과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을 주제로, 11일에는 ‘우리 아이 성교육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안현미 카운슬러, 로렌 권 카운슬러가 각각 강의했다.

두 번에 걸친 세미나에 총 90여 명의 한인 학부모들이 참석해 자녀교육에 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앞으로도 한인 학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한인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성제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

나성제일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음악회를 18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연다. 음악회에는 테너 오우영, 바이올린 이나래, 비올라 유헤리, 피아노 나옴이 임 씨가 출연

하며 이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도 안정화 지휘자, 김소희 반주자와 함께 참여한다. 교회 주소) 213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전화) 213-388-7101

올림픽장로교회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 동사 권태산 목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오는 6월 18일 오후 4시에 드린다. 이 예배에서는 박헌승 목사(토론

토 서부장로교회)가 설교할 예정이다. 주소) 3020 Wilshire Bl.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387-1700

“하나님의 말씀 서예하며 묵상해요”

예향문화교실이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한글 서예 강습을 흘러 톤장로교회(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하고 있다. 이 교실에서는 목회자, 사모, 평

신도에 관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예로 쓰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친교도 나눈다. 관심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714-800-3603 노애희

비즈니스로 복음 전하려면?

선교와목회를위한정보센터 주최로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포럼이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에서 6월 9일(금) 개최됐다.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는 오늘날의 선교 현장에서 실질히 요청되는 선교 전략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본다.

선교와목회를위한정보센터의 제임스 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시니어 전문인 선교 전략, 기독교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개발, 올바른 재정관리 전략, 교육 선교, 기



선교와목회를위한정보센터가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포럼을 열었다.

업의 해외 확장 전략, 스포츠, 의료, 농업, 음악, 적정기술을 통한 전문인 선교 전략을 소개했다.

태국 방콕에서 어린이 교육 사역을 하는 이상수 선교사, 빈곤국가에서 우물 개발 사역을 하는 임영호 선교사, 몽골과 터키에서 교회 개척

을 하는 이에레미야 선교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사례발표를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권 셀비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를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엘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올림픽장로교회 창립25주년

감사예배 6월 18일 오후4:00
“함께 하신 이번이 삶의 하사심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5

예배시간
주일 1부 8:30
주일 2부 11:00
일일예배 11:00
주일 저녁예배 6: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새벽기도회 5:30(월-금)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올림픽장로교회
Olympic Presbyterian Church
(213) 387-1700 www.olympic-church.org
3020 Wilshire Bl. L.A. Ca 90010

담임목사 정 장 수
동사목사 권 태 산

1992년 4.29 폭동이후 이민사회와 교회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터를 잃어 버렸습니다. 성공만을 바라 보면 달려왔던 삶은 돌아 보아야 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올림픽장로교회는 폭동의 중심인 한인타운에서 사랑과 섬김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를 돕고, 타인종 교회들을 지원하고 자녀교육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임했습니다. 교회를 개방해서 많은 단체들이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분쟁과 큰소리 없이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25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6 th
Catalina
Vermont Ave
Westmoreland
3020 Wilshire Bl
Low School
Wilshire Ave
Vigil Ave
Recover

(월서와 버질, 큰가마식당 뒷편)

1997년-2014년 2014년-2016년 2016년-현재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22>

교회의 중심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다음으로 위대한 일은 교회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인간으로부터 영광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예배를 위한 교회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열방의 예배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신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교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이시고, 선교의 인도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를 구원해야 그의 민족을 구하고 그 민족을 통해 열방의 모든 백성을 구하는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세우신 가장 큰 능력을 부여받은 믿음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유기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 복음사역을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체의 개념으로 흠어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이름이 붙여지고, 교파와 교단이 생기고, 각지교회에 담임목회자가 세워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의 개념이 많이 퇴색돼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성경께서 교회에 주시는 세상을 이길 권능을 각지교회들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교회는 서로 경쟁심을 버리고, 큰 교회의 우월감이나 작은 교회의 자각지심을 버리고 한 교회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레야 성령의 능력이 살아나고 세상을 이길 영적 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선교가 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악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열방에 흠어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해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나라의 한 형제임을 알고 서로 사랑으로 뭉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복음증거의 사명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들이여!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을 온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같이 흔들십시오. 선교단체들은 앞장서서 장단기 선교사를 발굴, 훈련, 파송하여 오직 예수의 깃발을 현장에 꽂고, 교회는 받은 은사대로 선교사 자원을 풀고, 양육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이 주님께 나아와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만국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며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이 방학을 맞아 미 전국을 차로 돌며 복음증거하는 모습

● 제이슨 송 칼럼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6)



제이슨 송 교장
세안약초중고등학교

실패를 너무 심각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마비로 연결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패로 인한 두려움에 억눌려 사는 사람은 대부분 활발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며, 실력과 경험을 쌓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더 실패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아주 무서운 악순환이죠.

실패로 인해 두려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고 마비되어 방향을 잃은 사람은 또 다음과 같은 생각과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아 연민: 이것은 자신에 대해 느끼는 동정 즉, 자신이 피해자란 생각과 인식인데, 이로 인해 항상 상처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삽니다. 그리고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곤 모든 사람을 경계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승리자(victor)로 살아야 하는데, 자아연민에 빠진 사람은 희생자(victim)같이 살죠.

변명: 피해자의 태도는 변명으로 연결되는데,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 상황적 불리함으로 돌리고 자신을 비판이나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려 합니다. 즉,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배우고 대처하기보다 변명을 통해 실패의 이유를 자신이 아닌 다른 원인 즉, 타인과 상황과 관리할 수 없는 환경적 이유 때문이라고 돌려드립니다. 사실 실패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이 너무 잦거나 자신을 실패의 원인에서 아예 배제하여 심리적인 위로를 받으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무력함: 희망을 잃었기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쇠약감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무력한 자세란 두려움으로 인해 전진하지 못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수동적이고 의욕이 없어 매사를 미루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짓눌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력함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기 쉽고, 세상을 등지고 살려고도 합니다.

에너지 낭비: 초점이 없고 목적과 관

련없는 업무나 일에 종사하고 또 때론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그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에 만족과 위로를 느낍니다. 분주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연연하여 목적이 불투명하더라도 그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려 하며, 자신도 그것에 위로받고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목적과 관련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들을 관리하는 상관에게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실패로 인한 두려움,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생산적 생각과 자세를 살펴봤는데, 그럼 이런 실패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두려움의 악순환을 끊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노력은 두려움을 피하려는 태도와 자세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움이기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직마운틴에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는 플라셔스와 레볼루션이었습니다. 무서워서 탈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친구들이 저를 놀렸습니 다.

“야, 넌 무서워서 못 타겠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한 형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재네들 말 상관하지마. 다 처음엔 무서워 해. 나도 그랬어. 그런

데, 너 재네들이 놀리는 거 듣기 싫으면 그냥 무조건 타야 한다. 내 옆에 앉아라. 내가 같이 타 줄게.”

와! 그땐 그 형이 얼마나 쿨해 보였는지 모르나. 그래서 어떨결에 그 형 옆에 앉아 레볼루션을 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탔죠. 끝나고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타고 보니 용기가 나서 또 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손을 번쩍 들고 고향을 지르며 즐겼던 게 기억납니다.

제가 매우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는 매직마운틴을 한번도 가 본 적 없고, 평생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이런 놀이동산에 갔지만, 용기를 내어 놀이기구를 타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무서운 기구를 타보지 못했고, 놀이동산 근처엔 걸심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우순은 이야기 같지만, 바로 이것이 두려움에 놀려 살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두려워도 한번 부딪혀 볼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아예 피해 다닐 것인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함께 해 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성경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말씀같이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연약하여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를 100%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과 맞설 때 우리는 꼭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종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라미라다 가든 꽃집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e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의사 LEE'S FUNERARIO

FERRARA & LEE'S MORTUARY Un Mortuorio Colonial De Empresas Ferrara

Since 1966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의사

리스장의사

더 가까이에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1966년부터 고객들을 모셔온 리스장의사 10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넓은 파킹랏과 리뉴얼 된 쾌적한 채플 비디오 모니터를 비롯한 최신 시스템, 편리한 캐더링서비스와 아름다운 가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리스장의사뿐입니다 오렌지카운티에 계신다면, 리스장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왜, 리스장의사 일까요?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의사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뉴욕교협이 헌법개정안을 위한 임시총회를 5일 효신장로교회에서 개최했으나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뉴욕교협 임시총회 헌법개정안 부결 찬성 13표, 반대 39표로 지지 부족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이 선거법 개정과 행정업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위한 임시총회를 5일 뉴욕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인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헌법개정안이 부결됐다. 뉴욕교협 43회기는 출범과 동시에 불필요한 분과들을 과감히 줄이고 지역자치 행정을 도입하는 등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시작했으며 개혁의 연속성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했으나 회원들의 지지를 얻기에는 부족했다.

헌법개정안은 지난 3차 임시행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부회장 임명제 실시를 통해 과연선거를 예방하고, 지역자치 행정을 명시해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활동의 모델을 지속하고자 했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4명 중 찬성 13, 무효 2, 반대 39표로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특히 임시행위 위원회까지 통과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가 13표에 그쳤다는 점에서 회기 중반 초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3회기 뉴욕교협은 많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며 출발했다. 이طم만 있는 유명 무실한 분과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방대한 조직에서 벗어나 실속있고 빠른 행정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을 중

심으로 한 풀뿌리 연합운동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자치 행정도 최초로 도입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민심은 뉴욕교협의 개혁 의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실제로 헌법개정안 부결과 관련, 이번 회기의 개혁의지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가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전조현상이 몇 차례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5월 29일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진행된 체육대회는 우천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참여자들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된 형식으로 진행됐다. 임시총회 참석 총대 수자 또한 300여 회원교회들이 2명씩 총대를 파송할 수 있는 총회임에도 총 참석 총대수는 54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43회기 뉴욕교협은 헌법개정을 다음 회기의 과제로 남기고 눈앞에 다가온 할렘루아대회를 비롯한 올회기 주요사업들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체육대회와 임시총회에서 보여준 회원교회들의 참여도를 볼 때 성공적인 할렘루아대회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 많은 홍보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7년 할렘루아대회는 7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주강사는 거룩한빛강성교회 담임 정성진 목사다.



노숙자 재활 및 영성수련회

노숙자들, 한인들 사랑에 새 삶 다짐 디딤돌선교회 제17차 노숙자 영성수련회

에틀랜타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오성 목사)가 제17차 노숙자 재활 및 영성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지난 6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다니엘 기도원에서 실시된 수련회에는 17명의 노숙자들이 참석했으며, 위싱턴 중앙장로교회 다솜 청년부팀(리더 박형일 목사)이 단기선교 프로그램으로 이곳에서 수련회를 인도했다.

위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는 3년째 매년 여름에 와서 디딤돌선교회와 함께 여름 수련회를 인도해 왔다.

14명의 선교팀이 이 수련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기도해 왔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노숙자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숙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았지만, 노숙자들을 만나 훈련에 참여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한 선교팀 봉사자는 “여기 오기 전 나는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이런 생활이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꿈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나보다 몇 배나 힘들게 살고 있는 노숙자들도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삶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팀 리더로 활동한 은빛 양은 “이곳에 오

기 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맡아 봉사했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불우한 이웃인 노숙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노숙자를 보면 피해갔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모든 선교팀원들이 큰 변화의 체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노숙자들 역시 한결같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지난 수련회를 통해 세례를 받고 다시 수련회에 참석한 제임스 형제는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2주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해 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과거 변호사, 영화 배우, 마약 딜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노숙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삶을 각오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세례를 받게 된 크레이그 형제는 “이번 수련회는 나의 삶에 가장 큰 변화의 기회가 되었다. 왜 과거에는 아무런 생각없이 살았는지 후회가 된다. 이제 새롭게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고백했다. 디딤돌 선교회는 매년 4차례 재활 및 영성수련회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404-429-9072

앤더슨 김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집중학교 / 토요일(17)와 비몬트 콘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인간세대를 섬기며, 이만(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언택트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용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피사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10:00-오후 1:00
한이정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회 오전 11:00 -오후 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알리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일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e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모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찬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모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인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심자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 천 초 정신의 호름, 바르고 건강한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모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모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리(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현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생명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유티모일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 저녁 8:00

강장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느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권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com

LA 동부, 팜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성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인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침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n & 아리아예배 오전 11:00
2부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함금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엇아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잠깐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이 힐-금-토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욱 담임목사

팜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양생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영양예배 오후 1:30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침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희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성경 기증식 모습. 맨 왼쪽부터 고희진·김성남·정종희·조용선 목사.

지역교회 4곳, 함께 쿠바에 성경 후원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 4,608부 기증식

한 지역에 있는 교회 4곳이 연합·후원해 해외 선교지에 성경을 기증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대한성서공회 용인 반포센터에서는 강남동산교회(담임 고희진 목사), 온누리교회(담임 조용선 목사), 영동교회(담임 정종희 목사), 초원교회(담임 김성남 목사) 등 네 교회 후원으로 쿠바에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 4,608부를 보내는 성경 기증식이 개최됐다.

남미 유일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돼 있지만, 종교에 대한 차별과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쿠바에는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인이 세 배 이상 늘어나, 현재 100만 명을 넘어섰다.

쿠바 정부는 기존에 있는 교회는 인정하지만 새로운 교회 건물 건축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쿠바 교회는 늘어나는 교인들을 감당하기 위해 가정집에서 20명 단위로 모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정 교회에는 십자가를 걸 수 없고, 이들은 거리에

나가 전도도 할 수 없다.

쿠바에서는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매우 적다고 한다. 그나마 갖고 있는 성경책은 너무 낡았고, 전력 사정도 좋지 않아 작은 글씨로 된 성경을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자체적으로 성경을 제작할 시설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외국 성서공회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부총무는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안경을 구하기도 어렵기에, 이번에 보내는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은 쿠바 사람들에게는 단비와 같다"며 "다시 한 번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개포동 지역 4개 교회 후원으로 기증되는 큰글자 스페인어 성경 4,608부는 쿠바 성서위원회를 통해 쿠바교회에 보급될 예정이다. 기증되는 성경은 7월 말 경 쿠바에 도착해 쿠바인들에게 전달된다.

이대용 기자

기성 목회자·신자 대부분 "동성애 반대"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치유·상담 필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소속 목회자들과 평신도 대부분은 동성애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울신학대학교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는 '목회 윤리(성윤리)'와 관련해 기성 소속 목회자(목사, 전도사)와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성도)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94%(964명)가 동성애 허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대부분 동성애를 죄로 보기 때문이었고, "동성애는 왜곡된 사랑이다", "동성애는 문란한 성생활에 빠진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은 약 5%(54명)였다. 이들 대부분은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이 답했다. "동성애는 유전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도 일부(6명) 있었다.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약 77%에 해당하는 791명이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도 약 21%(220명)로 나타나, 동성애 허용에 대한 입장보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이들(352명)이 '성경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억압 요인'을 꼽았고, 이어 '개인의 성적 취향'(275명), '성에 대한 자유(다양성)'를 인정하는 '도덕관념'(188명) 등의 순이었다.

이대용 기자

동성애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선 "상담소를 통해 심리치료를 받도록 돕겠다"고 답한 이들이 5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원하는 대로 도와주겠다"(192명), "기도원(집회)에 보내 신앙적 치유를 받도록 하겠다"(6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교회 내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묻자 가장 많은 522명의 응답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 과정을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또 209명은 "동성애자의 치유를 위해 작정기도를 할 것이다", 197명은 "동성애자를 교인으로 환영할 것이다"고 각각 답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약 92%(950명)가 반대하고, 약 6%(65명)가 찬성했다.

성경이 동성애를 허용하는지에 대해선 약 95%(970명)가 "그렇지 않다"(841명)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129명)고 답했다.

동성애자를 기독교인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동성애자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790명)가 "동성애자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219명)보다 많았다.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는 "기성 목회자와 신자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또 성경이 정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치유와 상담, 돌봄이 필요하다는 복음적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대용 기자

예장 통합 선관위, 공명선거 주문

예장 통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철모 장로)가 지난 달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부총회장 후보 예정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 열리는 예장 통합 제102회 총회에는 임은빈 목사(서울동남노회 동부제일교회), 림형석 목사(안양노회 평촌교회), 정도출 목사(서울강동노회 비전교회), 민경설 목사(서울서남노회 광진교회), 조병호 목사(서울강남노회 하이킴교회) 등 5명이 출마해 역대 가장 많은 후보들이 나섰다.

선관위는 오는 7월 13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에서 제102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초까지 전국에서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선관위가 후보 예정자들에게 공명선거를 요청하고, 후보예정자들은 의견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후보 예정자들과 선거관리위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깨끗한 선거, 축제 같은 선거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김철모 위원장은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의 제정 취지를 잘 지켜 주신다면 축제 같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선거 때문에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선거로 회복하자"고 요청했다.

부총회장 후보 예정자들은 선거운동을 앞두고 각자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나온 이현범 장로(광주노회 유덕교회)도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7월 13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에서 제102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초까지 전국에서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대용 기자

로 다짐했다.

김철모 위원장은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의 제정 취지를 잘 지켜 주신다면 축제 같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선거 때문에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선거로 회복하자"고 요청했다.

부총회장 후보 예정자들은 선거운동을 앞두고 각자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나온 이현범 장로(광주노회 유덕교회)도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7월 13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에서 제102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초까지 전국에서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대용 기자



중국 공안 당국이 웨주 지역에 소재한 아취 교회의 십자기를 제거하던 모습 ©ICC

중국서 매년 약 10만 명 예수 영접

기독교 박해 속에서 매우 의미있는 현상

늘어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독교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한 교회 지도자는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의 새신자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교회의 십자가 철거 및 목회자 구속, 선교사 추방 등 중국 당국의 기독교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어난 매우 의미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에릭 버클린(Erik Burkin) 목사는 미선네트워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기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교회를 세우가시는 역사를 보면서 큰 용기를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

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이 난징에 있는 유니온신학대학교에 약 73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버클린 목사는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기부금으로 채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날 난징 신학대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우리가 ‘작년에 세례를 준 사람의 수는 몇 명입니까? 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습니까?’라고 묻자, 한 목회자가 ‘매년 평균 약 1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릭 워렌 목사

“유혹이 다가올 때 이렇게 하라”

릭 워렌 목사, 웹사이트에서 조언

유혹에 직면했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나, 아니면 가능한 빨리 빠져나가야 하나?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의 리 워렌(Rick Warren) 목사는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성경은 그리스도들에게 유혹이 몰려 오는 상황에 대처할 ‘비상 전략’을 가질 것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릭 워렌 목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을 조려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예방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유혹받을 때를 대비해 비상사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간단한 예를 인용했다. 기독교인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갑자기 유혹적인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면 즉시 다른 프

로그래프로 도피할 수 있도록 채널을 바꿔야 한다.

릭 워렌 목사는 “사업상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나 성적인 유혹 등 유혹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같아야 한다. 일단 빠져 나오라. 그 유혹과 변론하지 말라”면서 “당신은 항상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유혹에 저항하지 말라”면서 “유혹에서 도망치라.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리 워렌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망설일 때 이미 불순종하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생각 좀 해볼게요’라고 대답해서는 안된다. 당신은 그런 종류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부모님에게 ‘생각해볼게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라마단 기간 치료 거부 당한 기독교인 사망

무슬림 의사 3명이, 하수도 청소를 하다가 질식으로 생명이 위독해진 기독교인의 치료를 거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우리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기독교 사이트인 슈바트닷컴은 지난 6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의사의 치료 거부로 숨진 한 기독교인 청소부 이르판 마시(30) 가족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르판은 하수도를 청소하다 질식해 의식을 잃고 파키스탄 신드주 우르마코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매우 위독한 상태였으나 무슬림 의사들은 “그가 종교도 다르고 몸도 더러워 만질 수 없다. 라마단 기간에 불순종할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했다.

이르판의 형인 파베즈는 “내 동생은 몸에 묻은 오물을 씻기는 중 사망했다”고 말

했다. 또 병원에서 응급처치로 산소 펌프를 제공했지만 펌프가 비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과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르판의 시신을 갖고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르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 제대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르판을 제외한 3명의 다른 청소부들도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2명은 사망했다.

비영리단체인 박 사법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파키스탄 기독교인이 직면한 편견과 증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고발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단이 되어 3300 세계전용 무늬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LA메리츠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오전침례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더글러스)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년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정동석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 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ان.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아)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 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족 예배 :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규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6: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분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 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말본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생예배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일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에프터스쿨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일예배 오후 7:30
FAM 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하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그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중등부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모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리스펙티브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최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침림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신문 한 부의 기적”
 국민일보 보내기 캠페인
 후원 세미나 1차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세미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대하 드라마를 보듯, 역사적 순서에 의해 **선교학적**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세미나 입니다. 5시간의 강의를 통하여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고, 설교, 성경공부 인도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시 2017년 7월 10일(월) 9:00 AM ~ 5:00 PM

장소 월드미션대학 채플홀(6층)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강의내용

- 9:00 AM ~ 12:30 PM – 구약 강의 (창세기 ~ 말라기)
- 1:30 PM ~ 4:00 PM – 신구약 중간사 & 신약 강의 (마태 ~ 요한계시록)
- 4:00 PM ~ 5:00 PM – Open Discussion(Q & A, 자유토론)

접수 8:30AM ~ 9:00 AM

회비(사전 등록): 개인 \$10, 부부 \$15(점심, 다과, 교재비 포함)
 당일 등록: 개인 \$15, 부부 \$25

연락처

Jane Kim (818)383-8743 | 김중한 총무 (562)215-2634
 janeyla618@yahoo.com | joongokkim@yahoo.com

***식사 준비 관계로 사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C 온누리교회
 성경통독 담당목사

강사: 김관수

이력 & 학력
 6/16~6/18/2017
 ASM(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선교학박사 연구논문 발표
 (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전문 강사
 (현) ANC 인성크대학 성경학과 담당 교수
 11/2010~2012: ANC DTS 담당목사
 (현) 선교학박사(DMiss) 과정중 / 풀러신학대학원
 선교신학석사(ThM) /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 월드미션대학





Young adults from more than 40 local churches gathered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in Brea, CA, for the first SOLA Nexus Conference, which took place from June 2 to 3. (Photo courtesy of the SOLA Network)

Church and Non-Profit Hope to Invest in Community for the Long Run

New Life Fullerton partners with Solidarity to provide job skills training to community members

BY RACHAEL LEE

A church and a non-profit joined hands to offer job skills training to youth and young adults in the Fullerton area.

The six-week course, which ran from April to May, was the result of a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New Life Fullerton, the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of a Korean immigrant church called New Life Mission Church, and Solidarity, a non-profit which serves low-income and inner city children and youth through various programs, including the program which New Life participated in, called Workforce Development.

Solidarity connected New Life's pastors and volunteers to youth and young adults ranging from 16 to 24 years old who would be interested in taking the course, while New Life planned each class, brought in the speakers and teachers, provided rides for students, and prepared snacks and food.

Over the six weeks, teachers and volunteers taught 15 students total – though attendance each week varied – on basic job skills such as making eye contact with employers, ways to speak professionally, and how to sit and stand during an interview. They also helped students explore potential career opportunities.

"For one student, this made a big impact on her and it helped her to learn how she can utilize her past experience and define it in her resume, and talk through it during her interview," said Will Chang, the lead pastor of New Life Fullerton. "This may seem basic to some people, but for those who come from broken families for example, they don't have that network of

people to be able to connect and learn from people in the field that they want to go to."

New Life Fullerton has often engaged in efforts to reach out to members of the surrounding community, Chang said, such as hosting computer classes, participating in food drives, or delivering care packages to the elderly. But many members of the congregation expressed a desire to engage in an outreach effort that was more long-term and relational.

"Part of our drive to partner with Solidarity was to do something similar to having the computer skills class, but doing it more strategically and for a longer term,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explained Chang.

By continuing to build relationships with members of the community, Chang said the members of the church hope to "minister to them as much as they also minister to us [the church members], and challenge us."

"We want to be the hands and feet of Christ, and that means we have to get to know people," he said.

Chang added that partnering with a non-profit like Solidarity, which has been serving the community for 17 years, allows the church to form connections with members in the community who the church may not have been able to meet on its own. As a veteran in the field, Solidarity served as a bridge, connecting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Chang said.

New Life Fullerton plans to continue to partner with Solidarity to serve members of the community, such as by providing free after school tutoring sessions for students in the community.

'In Every Workplace, Jesus Is Lord'

SOLA Nexus Conference for young adults takes place for the first time

BY RACHAEL LEE

Young adults from more than 40 churches gathered in Southern California for the first 'SOLA Nexus' Conference, organized by the SOLA Network, a group of Korean American pastors from nine local churches who have organized the SOLA Conference for college students for the past five years.

Incorporating elements of both retreats and conferences, SOLA Nexus featured main plenary sessions as well as small group sessions, and focused on the theme of connecting to God and others.

The conference, which took place from June 2 to 3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in Brea, CA, featured Alex Choi, the lead pastor of Sovereign Grace LA; Harold Kim, the lead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nd Ray Causly, a co-lead pastor of Living Way Community Church, as main speakers of the event. Five more speakers spoke during smaller seminars which delved into more specific topics such as being a faithful witness, dating and marriage, and decision-making.

Speakers encouraged young adults to trust God, to find their contentment and worth in God, and to seek God's kingdom.

Alex Choi, who spoke during the first night of the conference, said that the temptations that Jesus faced after his 40 days of fasting in Luke 4 portrays some of the major temptations that young adults may face today – that of self-pres-

ervation, instant gratification, and testing God.

"In order to really connect with God and with others, we need to overcome these temptations," said Choi. "And there's one thing that they all have in common. They are expressions of a lack of trust in God."

"Deep down inside, we don't believe his goodness or his power, we don't get his timing. Instead, we hold on to our pain, our fears, and our sins," Choi said. He encouraged young adults to continually "preach the gospel to [themselves]," and let go of those pains, fears, and insecurities.

Young adults were also encouraged to reflect on their motivations for work and the source of their self-worth. Finding self-worth in work, Harold Kim said, is a "cruel, cruel curse."

"There's really no rest from that kind of insignificance, fragility, insecurity," said Kim. "If you succeed, it will go straight to your head, but you will be terribly insecure ... If you fail, you're crushed, despairing, suicidal."

Instead, Christians should find their worth in "who" they are working for, according to Kim.

"If you work for Jesus, if you are really working and living for the glory of Jesus and what matters most to you is his approval, his pleasure, then get this: you can pour yourself out in a meaningless, dead-end job, never get promoted, not get the raise, pour yourself out faithfully and trust the results to God, because you're doing it for him," Kim said. "The

numbers won't make or break you ... if your just reward is from him in eternity."

Kim also encouraged the young adults and said that their work matters to God, and contributes to God's kingdom.

"In every workplace, Jesus is the Lord of all," he said, adding that according to the Apostle Paul in Ephesians 6, "Your work is directly related to the work before your ultimate master: Christ Jesus."

Ray Causly focused primarily on urging young adults to live out their lives for God's kingdom, and spoke from a passage in Acts 17 in which the Apostle Paul's "spirit was provoked," as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puts it, at the sight of widespread idol worship in Athens.

The word "provoked" in the original Greek has a "medical association with the word, epilepsy," he said, and added that that was the extremity with which Paul felt emotional about the lack of worship toward God in the city.

"The question that this generation has to ask itself is, as you are moving into the rest of your lives as young adults, does your heart beat for God?" said Causly. "Does it bother you ... that the exaltation of Christ is not the driving force of every person of every sector?"

"Do you dream about how you can engage this culture, to topple the idols that you see everyday?" Causly asked. "Is it the drive in your mind and your heart to see the idolatry in our culture ultimately fall and that this land would bow to king Jesus?"



New Life Fullerton and Solidarity partnered to provide job training to youth and young adults from 16 to 24 years old for six weeks. (Photo courtesy of New Life Fullerton)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나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The 'Billy Graham Rule': A Call for a More Balanced Response

BY HANNAH CHAO

Have you heard of the Billy Graham rule? It states that men should never have a one-on-one meeting with a woman who isn't his wife.

This rule recently came into the public eye when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that Vice President Mike Pence "never eats alone with a woman other than his wife and that he won't attend events featuring alcohol without her by his side, either."

Graham, a famous evangelist in the late 20th century, created this policy because he saw other pastors falling into sexual immorality and ruining their witness. He wanted to avoid "even the appearance of compromise or suspicion."

So is this rule good or bad?

The rule is useful. As Christians, we know we are sinful and can be tempted. If we prevent intimate interactions, whether it is dinner at a restaurant or one-on-one behind closed doors, we can minimize those acts.

But the rule can also be harmful. Taken too far, it reduces women to being sexual temptresses and insinuates that men are just animals with no restraint. Rather than building character which bears the fruit of self-control, the practice can erect a wall between the sexes.

The rule limits spaces for women, especially in Protestant churches where many pastors and leaders are men.

Who can women get one-on-one counseling from? The pastor's wife can be a substitute, but what if she doesn't have any theological training or counseling experience? Then isn't the female congregant getting less than a male would?

In addition, the practice can hinder

dating relationships. How many times have a guy and a girl at your church or Christian fellowship tried to get to know each other, only to be derailed by people calling them out or pressuring them?

We are constantly questioning people's motives. Is this guy hitting on me? Is it appropriate that it's just the pastor and one female staff in this meeting?

We are always haunted by how we think others perceive our actions with the other sex. What if someone sees us - will they think we're being shady?

At the same time, it is essential that we have guard rails because sin is real. Our pride and blind spots can lead to terrible consequences. There have been many sexual improprieties in church, some of which have touched our own congregations. There is danger there, and we must never overlook the pervasiveness of our own depravity.

So what are we to do then?

We should neither completely embrace the rule nor wholly reject it. Instead, we remember the Gospel, the good news that says that we are called to be free. But even though all things are lawful,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1 Corinthians 12).

The intent of the Billy Graham rule was to prevent sexual immorality that hurt the Christian witness. But we now know the practice had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hurting the church body. Women were short-changed or even vilified and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were met with immediate suspicion. While trying to avoid one slippery slope, we fell down another hill.

We can moderate our response to balance the two sides. Here are four things to remember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sex.

1. We are never burdened to follow legalistic rules that are one-size-fits-all. That's what the Pharisees did during Jesus' time, adding rule after rule to the Mosaic law. Over time, the burdensome regulations made it impossible for anyone to love God and love others. In the same way, we must only add rules that add to the safety of the people in our congregation, and cast aside those that hinder growth and training of all members.

2. We must acknowledge that the principle behind the Billy Graham rule is helpful and even necessary. For people who struggle mightily with sexual temptation, a clear line can be very helpful to help them stay in line with the Gospel.

3. We must constantly examine our own hearts. Really ask yourself, "Why am I meeting this person?" If there is sin or impropriety involved, cancel the meeting. If the Holy Spirit gives you a clear conscience, then go ahead and car-pool to the Sola Conference together.

4. Be accountable to one another. The church is a place where we can help one another walk in line with the Gospel.

As we live life toge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let us remember that our actions will affect one another. Let us not rely on rules to help us to do it, as they create barriers and broken relationships. Rather, let us truly love one another, as Jesus calls us to do.

Hannah Chao is a wife and a mom of two beautiful little girls. She is also addicted to Twitter. Hannah attends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u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Six Attitudes that Kill Evangelism in the Church

BY THOM RAINER

I won't bore you with statistics about declining evangelism in our churches. You don't need me to convince you most churches are not reaching our communities with the gospel. You don't need me to provide data that shows our churches are reaching fewer people today than just a few years ago.

But why are our churches less evangelistic today?

That question could be answered from a number of perspectives. But one of the key explanations is simply an attitude problem. There are several dangerous and debilitating attitudes in churches that are killing evangelism. Here are six of them:

1. "That's what we pay our pastor to do." The hired-hand attitude toward the Great Commission is debilitating. It emanates from an attitude of comfort and entitlement among church members. And, above all, it is totally unbiblical.

2. "Our church members are just not evangelistic." This quote comes from pastors and other church leaders. It is the other side of the coin of the blame

game noted in number one above. If pastors are serious about their churches becoming Great Commission instruments, they must begin by looking in the mirror.

3. "Our denomination does not help us." This attitude is a continuation of the blame and deflection issue. Evangelistic churches do not depend on denominations to lead them to share the gospel. They see the Great Commission as primarily an issue of local church responsibility.

4. "We emphasize evangelism once a year in our church." If evangelism is just another emphasis in the church, it is dead on arrival. It must be an ongoing priority of the church. The Great Commission is not just another event; it is living the priority of sharing the gospel.

5. "I don't know anyone well who is not a Christian." This attitude is part of the greater issue of the holy huddle in many churches. If the church members are not intentionally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who are not Christians, evangelism just won't happen. Here is a test to consider. How many of the groups or classes in your church are regularly seeking to connect

with unbelievers?

6. "We don't have the resources." The most effective evangelistic churches depend on two key resources: prayer and obedience.

The decline in evangelism in our churches comes down to just a few key issues. Too many believers see evangelism as the responsibility of someone else. Closely related to that issue is the matter of blame. It's the pastor's fault. It's the church members' fault. It's the denomination's fault.

I have seen churches make dramatic turnarounds when just one person decided to be radically obedient to the Great Commission.

The question should not be: "What about them?" The question should be: "What about me?"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June 5,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 Thom.S.Rainer.

10주 코스

제1회 미용선교사 양성을 위한 헤어컷 아카데미

10주만에 미용사(헤어드레서)가 된다면.....
선교지에서, 전도의 장에서, 봉사의 장에서, Job(잡)으로
당신도 10주만에 Hair Cut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아시아 대회 우승자 김인태 집사가 직접 남·여 헤어컷을 집중적으로 개인지도 합니다.

과목 : 단발, 이사도라, 스파니엘, 중간 레이어 컷, 롱레이어 컷, 숏트 컷, 남성 컷, 샹기 컷, 상고 컷, 스포츠형 컷, 유행 컷 등...

회비 : \$500 (\$200불 상당 미용키트 포함) 가위 2개, 크리퍼, 레저컷 용, 마네킹, 꽃이, 빗, 스프레이 등

디플로마 증정 *간단한 다과, 음료, 파킹

- **일시** : 6월 29일(목) 오후 7:00 ~ 9:00
- **장소** :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등록 및 문의** : T.(213) 434-1170, (213)739-0403
- **선착순 모집** : 10명
- **주최** : 기독교일보



강사 김인태 집사(나성순복음교회)
전 국가대표(86년)
아시아 대회 우승자
현 세미나 강사
필레스뷰티 미용대학 초청강사
Queenstone Colledge 강사



Iraqi Christians Arrested for Potential Deportation

Advocates call the arrests of dozens of Iraqis 'unbelievable,' a 'death sentence'

Dozens of Iraqi nationals have been arrested for potential deportation, many of them including Christians, in Detroit on Sunday, according to numerous reports. Many estimates say about 40 have been arrested, while some reports estimate as many as 80.

The arrests come as a result of an agreement made between the U.S. and Iraq. Though Iraq was initially one of the countries from which Trump's executive order banned travel, the U.S. had taken the country off the list in a new, revised executive order. In return, Iraq told the U.S. it would receive Iraqi nationals that were deported from the U.S.

For many of those who were arrested over the weekend, however, being sent back to Iraq — a country they may not have been in for decades — means certain torture or death, advocates say. Their lack of fluency in the language is one of the telltale signs of their life in America, and those who are Christian face an even greater risk.

"These are Christians that will be slaughtered as they arrive in Iraq," Mark Arabo, president of the Minority Humanitarian Foundation, told CNN. "It's inhuman, it's unfathomable, it's unbelievable and we will file a federal lawsuit asking for a stay."

Th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agency said in a statement that those who have been arrested have criminal records.

"As part of ICE's efforts to process the backlog of these individuals, the agency recently arrested a number of Iraqi nationals, all of whom had crimi-



Protestors of President Trump's travel ban executive order held up signs in Washington, D.C. in March of 2017. (Photo: Ted Eytan / Flickr / CC)

nal convictions for crimes including homicide, rape, aggravated assault, kidnapping, burglary, drug trafficking, robbery, sex assault, weapons violations and other offenses," ICE said. "Each of these individuals received full and fair immigration proceedings, after which a federal immigration judge found them ineligible for any form of relief under U.S. law and ordered them removed."

Advocates argue that many have already completed sentences for their crimes.

"I understand these are criminals, but they paid their dues," Eman Jajonie-Daman, a Detroit immigration attorney, told Reuters. "But we cannot send them back to die."

Nahidh Shaou, a U.S. veteran who served a 35-year sentence for shooting and wounding a police officer, is among those who may be deported, Christianity Today reports.

Shaou's niece, Tiara Shaya, told Christianity Today that "his Christian faith, his Chaldean ethnicity, his veteran status" will be among the reasons he will "be targeted" if he is sent back to Iraq.

"I see it as a death sentence. I really don't know how he could survive with the combination of targets on his back," she added.

Reports say that about 1,400 Iraqi nationals are currently on the docket to be deported, and some estimate that over 300 of those listed are Christians.

Scottish Episcopal Church Votes to Allow Same-Sex Marriages

The Scottish Episcopal Church voted to remove language in its canon which defines marriage as a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and opening up marriage within the denomination to same-sex couples, making it the first mainstream denomination in the UK to do so.

Previously, the denomination's Canon on Marriage included a clause defining marriage as a "physical, spiritual and mystical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The vote removes this clause, and includes a new clause saying,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are differing understandings of the nature of marriage in this church, no cleric of this church shall be obliged to conduct any marriage against their conscience."

The change required a two-thirds majority vote in the General Synod, and the vote showed a significant majority in favor of removing the definition of marriage. Eighty percent of bishops, 68 percent of clergy, and 80 percent of laity voted in favor of doing so.

"We affirm that we are a church of diversity and difference, bound together by our oneness in Christ," the Scottish Episcopal Church said in a statement. "We shall carry for-

ward in our life two honourable and historic understandings of marriage — one which sees the marriage of same sex couples as an expression of Christ-like acceptance and welcome — and another which says that the traditional view of marriage is God-ordained and scripturally defined."

"That is the journey. That is now the calling of this church. We must and we shall address it with truth, graciousness and acceptance of one another," it added.

The change also marks the Scottish Episcopal Church's rift from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Anglican Communion, which sanctioned the U.S. Episcopal Church in 2016 when it decided to accept same-sex marriages.

Advocates of authorizing same-sex marriages applauded the move. Jayne Ozanne, an advocate for LGBT rights in the Church of England, said that she is "thrilled," and praised the Scottish Episcopal Church for making the change "in a graceful and sensitive way, recognizing the differing views on how we interpret scripture," she was quoted as saying by The Guardian.

Meanwhile, upholders of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marriage ex-



A welcome sign posted at St. John's Episcopal Church in Ballachulish. (Photo: Loz Pycock / Flickr / CC)

pressed they are "broken" by the change, as the Rev Canon Ian Ferguson of the Aberdeen diocese was quoted as saying by the Telegrap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Anglican Communion said the recent move is "a departure from the faith and teaching upheld b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Anglican provinces on the doctrine of marriage."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ela.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컬러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 스트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 -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어집입니다. 영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집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통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악이 있어 생명을 도둑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서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요 1:12-13).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합니다(요 3:3-5).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

조물이 됩니다(고후 5:17).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새 영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엡 2:5-8).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란 죽어 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랑을 통해 풍성케 됩니다. 사랑을 통해 소성케 됩니다. 사랑처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사랑을 받으면 죽은 생명도 살아납니다. 병든 생명도 회복됩니다. 암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도 사랑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기채 목사님은 “사랑과 생명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악(evil)은 생명(live)을 거스르는 것이다. 사랑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으며, 생명이 있는 것마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악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며, 오직 사랑을 통해 우리의 생명은 풍성케 됩니다. 선교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 23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잔치를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봉사,마음,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매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6월 17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술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교일보, FHM이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목이 빠지는 아픔



김성민 목사
펠리세이드교회

갑자기 몇 주 전부터 목이 아프더니 곧 두통으로 이어졌다. 며칠을 참다가 두통약을 먹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니만 또 다시 뒷목이 뻐뻐하고 두통으로 연결되었다. 다시 한 번 약을 먹었으나 마찬가지다. 교회에 용한 한의사가 계시어서 침도 맞았다. 역시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음 날 같은 곳이 아프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심각한 병은 아닐까? 병원을 가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그 병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 스스로의 진단이지만 정확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 있다가 일어나면 꼭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경성일 수도 있지만 책상과 컴퓨터 화면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그 거리에 비하여 화면이 작기에 계속 목을 빼고 일을 하니 목이 빠질 듯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내 나이가 들어서 그렇고, 교회 일이 많아서 그렇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모두 틀렸던 것이다. 내가 자세를

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때에 컴퓨터 화면에 점점 빨려들어가 목이 빠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빠져서 온통 눈과 귀와 목을 빼고 조금이라도 더 듣고, 더 먹고, 더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스테판 집사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에 눈이 빠져 있는가?

왜 믿을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먼저 스스로에게서 찾자. 아마도 영적인 자세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다.

가장 값진 열매를 위하여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침례교회

영국의 작가 중에 호레이스 월폴(Horace Walpole)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후 6개월만에 영어의 알파벳을 암기했고, 두 살 때는 글을 읽을 수 있었으며, 세 살 때는 역사적 사건들을 시대 별로 암기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해서, 12살의 어린 나이로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정도였다니 가히 그의 천재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별로 남긴 것이 없습니다. 신통치 못한 글만 몇 편 남겨 놓은 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의 방 안에는 가득히 쌓아 놓은 전자표만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월폴을 이 취미삼아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바른 목적을 위해 쓰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길 열매가 있는 바른 삶을 살려면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 1:27)고 했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생명이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복음을 위한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값지고 영원토록 남는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살람!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Tax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지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위한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생성 및 분비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배타효소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특정 이벤트와 할인 정보, 제품 소개, 연락처 등 상세한 광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이기를 힘쓰자

히브리서 10:12-2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교회는 광야와 같아서 다른 영에 속한 사람도 드나듭니다. 그러나, 진리가 바로고 성령이 뜨겁고 강하게 불같은 은혜 역사로 알차게 가꾸어주신 교회라면 누구나 다 양심이 악을 깨달아 죄를 회개하게 마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얻어 의로워졌다는 자격을 인정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이 라는 표시로 보혜사라는 성령을 파송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책임지시고 받아주신 구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생활은 의, 식, 주 문제 뿐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소망을 가꾸어 결실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머리 터럭 하나까지 헤아리며 알뜰히 보살피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훗날 주 앞에 더 나은 자격으로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일거리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 물질은 책임지고 뒷바라지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만 가지로 유익한 결과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참 마음은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 아무 것도 모르고 다닐 때는 재미도 없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듯해서 쑥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인 욕구가 갈급해져서 교회 가는 것이 그저 즐겁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고,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은혜 충만한 모습이며 참 마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한 기대도 염려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3:12-14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이기를 힘써서 혹여 믿지 않는 악심을 품어 시험에 들거나, 이단의 꾀임 가운데 있거나, 악령의 유혹을 받아 쫓대 없는 신앙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없는지 염려함으로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4:4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며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그 즉시 죽읍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위로와 격려, 보살핌으로 교회를 통한 성도의 교제가 유익함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돌보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고 합니다(24절). 성도의 잘못을 보았다면 곧 교회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덮어주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며 조용히 바로 잡아주게 될 때 서로 간에 인격적인 신앙으로 유대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만약 보기도 싫은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도 피 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선행을 사랑함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며 협동해 줄 때 그 교회는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체질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과 잘못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하고 신앙적 본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른 잘못으로 생각한다면 남들에게 그 허물과 잘못을 말하고 다니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과 같다는 의식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의 징조가 더욱 짙어질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주 모이는 곳에 성령이 진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43-47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이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소욕(所欲)은 진리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저절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줄 알았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신령한 소망의 은혜가 확실히 믿어지게 되니 이제부터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조건이지 돈이 아니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령한 영적 교제를 위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조건에는 뜻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19-20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두고 합심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서둘러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합심기도하는 목적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두 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8:20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구역, 전도회, 학생회 등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신앙을 잘 가꾸어 가려 해도 그 사람은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럿이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동, 권면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피차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오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적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권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신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학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신년맞이 패키지
 (8인치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A형 스탠드배너 \$160 (디자인 포함)
 사탕의 동산교회 \$140
 Standard 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선교 찬양 단원 모집

• 단장 : 1명 • 기타 : 1명
 • 단원 : 12명 •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 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목, 발목 질환 }
- 마디관절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7 VACATION BIBLE SCHOOL

MAKER FUNFACTORY Created by God Built for a Purpose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4.20

No Minimum No Set up Fee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media@gmail.com

Wet Tissue Full Color Printing
 250ea \$190
 500ea \$250
 1,000ea \$380

Bag
 50ea \$6.5(ea)
 100ea \$5.5(ea)
 200ea \$4.9(ea)

Banner 3ft x 10ft \$50

Poster (11x17 inch)
 \$20(5장) / \$50(20장)

Invitation Card
 250ea \$99
 500ea \$120
 1,000ea \$150

신간 도서

페어 처치

이도영 | 새물결플러스 | 408쪽

그동안의 선교적 교회 논의를 충분히 소화해 재구성하고, 한국교회 체질에 맞는 '토종' 선교적 교회론을 경험을 통해 펼쳐 보인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특정 색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균형을 잃거나 세속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온전한 선교적 사명을 상실했으며, 지나치게 복음을 개인의 영성과 개교회 중심으로 환원해 공공성을 놓쳤다고 진단한다.



추천 도서

예언자가 필요 없는 사회를 상상하다

필자도 어느덧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아버지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가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지금 와서 돌아켜 보면, 자녀들이 아빠가 필요했던 시절인 유·소년기를 정작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지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역설적이게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같지 않은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아버지를 잊고 지낼지언정, 아버지는 한시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 적이 없으셨다. 그러나 이것마저 아주 가끔씩 인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 앓는 하나님 김기석 | 꽃자리 | 464쪽

당돌하게 이런 상상을 해 본다. '예언자가 필요 없는 사회!' 물론 신학적으로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예언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들,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아닐까?

저자는 하나님이 공공 앓으시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부제인 '에레미야 산책'에서 이 제목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공공 앓으실까? 선지자를 그토록 보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 선지자까지 죽이는 이스라엘, 결국 그로 인해 멸망할 이스라엘,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렇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분명히 자식에게 회초리를 든다. 그런데 문제는 저자도 언급하고 있듯, 하나님의 경고와 회초리를 맞고서도 여전히 세상에 눈멀어 그 경고와 회초리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지만, 멸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기회를 마련하시는 것이다.

회복(구원을) 향하여

저자는 탁월한 문장력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에레미야 본문의 숲을 예리하게 통과해 간다. 즉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와 줄거리를 편안하고 쉽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 왜 '에레미야'를 붙잡았을까? 물론 혼자만의 질문이지만, 유다의 멸망 직전 상황과 오늘날의 현실이 겹쳐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회개, 정직, 공의, 섬김 등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보다는 미래의 위로, 회복, 희망만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더 열광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진리가 가리어진 현실을 선지자의 마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까? 누가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 본서는 '거짓'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을 알리고자 공공 앓고 계시는 아홉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모습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누가 내어 줄 것인가? 그리고 누가 들어줄 것인가?

강도현 목사(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치유의 시간

김민정 | 생명의말씀사 | 176쪽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문 모음. 어떤 인간보다 깊은 아픔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병상은 가장 위대한 축복의 자리 가 될 수도 있다. 상황마다 간절함이 다르기에, 각각의 상황에 맞춘 기도문으로 구성돼 있다. 병을 알게 된 순간부터 병상 생활을 하고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극복까지, 그 간절함을 기도문 안에 오롯이 담았다.



그림 속으로 사라진 남자

벨리 허먼 | 안창준 역 | 이른비 | 360쪽

목사가 되기를 꿈꾸었던 청년이 화가로 살게 된 결정적 체험을 소설로 담았다. 바로 그 유명한 '반고흐'의 이야기이다. 고흐의 깊은 내면과 삶의 모순성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미술사적 고증과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벨기에 보리나주 탄광촌의 전도사 시절 3년을 복원했다. 이 책은 고흐가 '광기 어린 천재 화가'였다는 박제된 시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에레미야

보편적으로 볼 때 성경은 66권이지만, 설교자들에게 인기 있는 성경과 그렇지 않은 성경은 확연히 구분된다. 그렇다. 에레미야서는 설교자들에게 인기 있는 성경은 분명 아니다. 그래서인지 그나마 에레미야서 본문을 설교자들이 가끔 인용할 때도, 사실 그 본문의 전후 문맥과는 상관없이 '단어'의 의미에 따라 극히 그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에레미야서는 설교자들과 성도들에게 인기 없는 성경이 됐을까? 에레미야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 배경 같은 지식들이 필요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회피의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에레미야서는 독자나 청중들에게 유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자아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에레미야서를 묵회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한 사람은 현재 기억으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칼빈의 에레미야서 강해가 있던 한데, 그 글이 묵회 현장에서 사용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 에레미야서 강해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본서 또한 에레미야서 전체를 아우르지만, 본문을 깊게 다루지는 않는다(강해가 아니라 산책이다).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

에레미야가 성도들뿐 아니라 설교자들에게도 불편한 이유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참 예언자는 청중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거짓 예

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의 말을 전한다. 그 말은 바로 청중들이 원하는 말이다. 참 예언자는 청중들에게 '회개'와 '변화'를 선포한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과 '변영'을 선포한다. 물론 참 예언자도 하나님의 평안과 변영을 선포한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평안과 변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빠진 '변영'과 '평안'은 사탄의 속임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허물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을 두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부모가 실제로 있다면, 그 부모는 무지하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 앓는 하나님

왜 제목을 "공공 앓는 하나님"으로 했을까? 책을 읽는 내내 의문이 들었다. 물론 유다의 멸망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저자는 '참 예언은 일어나지 않는 예언'이라고 언급한다. 이 말은 예언자의 예언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이 이 예언(심판과 진노)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언의 내용이 실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예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가 자신들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더 엄중하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들도 남의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고 엄중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신 것이다.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이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매편: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터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세 남매를 명문대에 합격시킨 부모의 실·전·교·육·노·하·우

공부하는 아빠 공부시키는 엄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단순히 유전자를 물려주고 성장시키는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양육은 부모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이 함께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이자 축복입니다. 자녀의 인격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부모가 맘을 풀리며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자녀의 기쁨과 아픔을 보면서 부모가 뒤우치고 더 성숙해지는 생방향적인 사건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며 자기 스스로가 치유되고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는 경험, 이러한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기쁨은 안달복달 임시 정보만 캐물고 다니며 자식의 성과만 총용하는 부모가 절대 느낄 수 없는 소중한 체험입니다.



저자 김영숙

한 목회자의 아내, 세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저자는 35년째 양육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용수 목사의 사모이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의심치 않는 김영숙 사모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업 퍼포먼스를 높이는 커리큘럼을 개발 운영하는 (와이즈맘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연구소를 통해 매우 젊은 엄마들과 자신의 양육 노하우를 공유하며,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부모의 훈육 자세가 천만 원짜리 짜의 공부보다 훨씬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영숙 지음
192면 | 10,000원

지용수 목사의 저서

- 설교
 - 모든 문제의 해답 324면 / 7,000원
 - 꿈꾸는 것 같았다 408면 / 12,000원
 - 우리가 말한대로 408면 / 14,000원
- 아이보서 강해
 - 지혜를 얻는 열쇠 508면 / 15,000원
 - 요한계시록 강해
 -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상) 414면 / 10,000원
 - 새 하늘과 새 땅(하) 484면 / 12,000원
 - 빌립보서 강해
 - 그리스도인의 주소 572면 / 12,000원
- 새끼 강해
 - 오늘의 드보라 312면 / 9,000원
 - 평화롭게 사는 길 400면 / 12,000원
 - 최후의 승리 336면 / 10,000원
 - 미카엘을 강해
 - 성도의 행복 416면 / 11,000원
 - 오늘과 그날 470면 / 12,000원
 - 주님의 약속 459면 / 12,000원
 - 위대한 임무 397면 / 11,000원
 - 요나서 강해
 - 요나와 나 208면 / 9,000원



At Talbot School of Theology, we've reshaped our degree programs to make them more convenient and accessible than ever. With fewer required credits and more online options, you can move more quickly into your career or ministry while studying with reputable Christian scholars who are committed to biblical fidelity and spiritual growth.

THINK BIBLICALLY ABOUT EVERYTHING

Reduced-Credit M.A. and M.Div.
단축된 M.A. 와 M.Div. 프로그램

NEW AT TALBOT:

- Fully online M.A. in Bible Exposition
- Fully online M.A. in New Testament
- Fully online M.A. in Theology
- 79-credit Master of Divinity programs (up to half the credits available online)
- 49-credit Master of Arts programs



talbot.edu/cd | Southern California | Online